



Cover Story

신산업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국제무역도시 GFEZ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산업·물류 비즈니스 거점 중심도시로써
 아시아 시장을 넘어 세계 1위 경제자유구역 자리를 향해 꾸준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GFEZ Journal

Summer 2017



오늘의 전진은 미래를 위한 가장 강한 추진력

세계 최초로 24시간 뉴스 채널 CNN을 창립한 테드 터너는 '전진'에 대해 "계속해 가는 것. 슬럼프까지도 견디며 꾸준히 가는 것. 전진은 성공한 사람들의 것. 포기한 자는 전진을 모른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전진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려는 굳센 의지와 언제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의 집약체입니다. 우리 삶은 결코 과거로 회귀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끝없이 전진한다면 어느 방향으로든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것을 믿습니다.

知

- 04 64th Theme
장미 옆에서
- 06 Theme Story
묵묵히 전진하면 찾아오는 것

通

- 08 HOT Topic
노사민 화합한마당 '1사 1마을 자매결연식' 체결로 화합과 소통의 의미가 더해지다
- 10 Brief News
광양청 8대 뉴스
- 14 Column
스스로 길을 밝혀 전진하는 광양만청
- 16 Interview
지자체 간의 소통과 노력으로 성장하는 광양만권 주철현 여수 시장
- 18 People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신뢰받는 기업 ㈜썬테크
- 22 Invest in GFEZ
국제 해양관광지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 24 Local News
주요기관 소식 및 입주기업

言

- 26 Trip
여름에 만나는 자연, 푸른 향기의 하동
- 30 Festival
시원한 바람 속 물길따라 떠나는 여름 축제 & 문화행사
- 32 Work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건강한 수면 생활법
- 34 Economy
똑똑하게 알고 쓰자. 현명한 신용카드 활용법
- 36 Cartoon
여수 경도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 추진 중이에요!
- 38 독자후기 & 이벤트 SNS

08 노사민 화합한마당 '1사 1마을 자매결연식' 체결로 화합과 소통의 의미가 더해지다

14 스스로 길을 밝혀 전진하는 광양만청

18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신뢰받는 기업 ㈜썬테크

22 국제 해양관광지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GFEZ(Gwangyang Bay Area Free Economic Zone)는 동북아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육성시키고자 2003년 10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동북아 해운물류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비교우위의 산업인프라, 각종 규제 완화 및 지원정책으로 기업 친화적 환경을 갖춘 한국 경제 자유구역의 선두주자입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저널 Vol. 64

발행인

권오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편집인

(주)DNS

발행일

2017년 6월 30일 (통권 제64호)

발행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061-760-5091~3)

간행물 등록번호

전남, 바00035

홈페이지

www.gfez.go.kr



장미 옆에서

은묵서 향기에
촉촉이 젖은 아침
밤길 멈추게 하는
우아한 자태

수줍은 듯
보이기 싫은 듯
님 찾는 나그네
상포시 반겨주네

향기는 없어도
빠알간 열정으로
나그네 눈 사로잡는
아름다움이 있네

향기는 없어도
시린 아침 햇살 속
님의 자태는
세상 품은 듯 아름답네





Theme Story.

묵묵히 전진하면 찾아오는 것

우리 사회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목표를 향해 '빨리' 도달하기를 강요한다.

그래서 '티끌 모아 태산'이나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같은 말들은 요령을 모르는

바보들이나 하는 일들로 치부되곤 한다. 하지만 빨리 모래로 쌓은 성은 언젠가 바닷물에 휩쓸려가기 마련이다. 목표에 빨리 도달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중단 없이 전진하는 것이다.

우공이산은 큰 결과도 작은 행동과 그 지속으로부터 나온다는 진리를 말해 주는 것이다.



1960년, 한 젊은이가 아내를 잃었다. 산에서 굴러떨어진 그의 아내는 옷과 이불을 흠뻑 적실 정도로 머리에서 피를 쏟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다. 그들이 살던 마을은 가파른 돌산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가까운 읍내로 간다고 해도 무려 88km를 걸어야만 했다. 아내는 절망 속에서 허망하게 하늘로 떠나버렸고 그의 곁에는 일곱 살 아들과 세 살 난 딸이 남았다. 인도에서 가장 가난하고 전체 인구의 60%가 절대 빈곤층인 비하르주 시골 마을 가흘로우르에 사는 수드라 계급의 촌로, 다스라트 만지의 이야기다.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한 전진

만지는 처음에 눈물도 나지 않았다고 한다. 어찌어찌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는 정과 망치를 들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마을과 세상을 가로막았던 거대한 돌산을 쪼아나가기 시작했다. 길이 없어서, 그저 읍내로만 갔으면 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한 묵묵한 전진이었다. 처음엔 거대한 바위산 앞에 선 그를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다. 아내의 죽음 때문에 미친 사람으로 여길 뿐이었다. 돕는 이 하나 없었고 정부로부터 원조도 없었다. 만지는 낮이면 남의 집 논일과 밭일을 해주고 저녁이면 두어 시간 정도 산을 뚫었다. 생계도 어려웠지만 한 번도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에게 맡겨진 소임인 것처럼, 정절은 삶의 한 부분이 되어갔다. 그렇게 시작한 공사는 무려 22년 동안 계속되었고 1982년에 이르러서야 끝났다. 완공된 길은 총 길이 915m, 평균 너비 2.3m에 이르렀다. 그가 만든 새 길에는 잡화상이 들어섰고 주민들은 자전거를 이용해 읍내와 마을을 오갔다. 뒤늦게 정부와 비하르 주에서 표창장과 상금을 주겠다고 나섰지만, 그는 할 일을 했을 뿐이라 말하며 거절했다. 다만 정부의 역할을 꼬집었다. “길 만들었다고 종이 나부랭이 주지 말고, 다른 동네에 길이나 하나 내도록 해야 할 것 아닌가. 인도 정부는 정말 쓸모가 없어. 가난뱅이들을 위해서는 결코 아무 것도 하지 않거든. 인도에서는 힘든 일이 생기면 자기 두 손으로 직접 해야 한다고” 아내의 죽음을 잊고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 시작한 그의 전진은 큰 깨달음과 울림까지 남겼다.

속도보다 지속, '우공이산'의 지혜

만지의 이야기를 생각하다 보면, 우공이산(愚公移山)이 떠오른다. 북산에 우공이라는 아흔 살 된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노인의 집 앞에는 넓이가 칠백 리, 만 길 높이의 태행산

과 왕옥산이 가로막고 있어 생활하는 데 무척 불편했다. 어느 날 우공은 가족들 “우리 가족이 힘을 합쳐 두 산을 옮겼으면 한다. 그러면 길이 넓어져 다니기에 편리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우공과 아들, 손자는 지게에 흙을 지고 발해 바다에 버리고 오는 것을 반복했다. 꼬박 1년이 걸렸다. 이를 본 이웃 사람이 비웃자, 우공은 “나는 늙었지만, 자식과 손자가 있고, 그들이 자자손손 대를 이어나갈 것이다. 그러나 산은 불어나지 않을 테니, 대를 이어 일을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 산이 깎여 평평하게 될 날이 오겠지” 라고 말했다. 놀란 산신령이 그 말을 옥황상제에게 전했고 두 산을 멀리 옮겨주어 노인의 뜻이 성취되었다는 고사(故事)다. 우리 사회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목표를 향해 '빨리' 도달하기를 강요한다. 그래서 '티끌 모아 태산'이나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같은 말들은 요령을 모르는 바보들이나 하는 일들로 치부되곤 한다. 하지만 빨리 모래로 쌓은 성은 언젠가 바닷물에 휩쓸려가기 마련이다. 목표에 빨리 도달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목표를 향해 중단 없이 전진하는 것이다. 우공이산은 큰 결과도 작은 행동과 그 지속으로부터 나온다는 진리를 말해 주는 것이다.

사막을 전진하면 언젠가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다

우리는 노력의 의미가 '노오력'으로 변질된 사회에 살고 있다. '노오력'이란 노력에 한 글자를 더 보탬 정도로 죽도록 애써도 안된다는 뜻이 담긴 신조어다. 청년들은 취업난과 빈곤에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현실을 두고 아무리 '노오력'을 해도 안된다고 자조한다. 비로소 조건을 바꿔야한다는 것을 깨달은 젊은 세대는 투표로 답하기 시작했다.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은 국민들이 목은 과거와 이별을 고하기 위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던 후보 시절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숭고하고 준엄한 가치를 확인했다.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역사는 전진한다. 대한민국은 이 새롭고 놀라운 경험 위에서 다시 시작될 것이다” 죽도록 애써도 안된다는 것을 깨달은 이들이 뽑은 새로운 정부. 그리고 국민들의 염원을 어느 정부보다 잘 알고 있는 새 정부가 들어선 새 시대. 이제 우리는 같은 출발 선상에서 뛸 수 있는 기회를 되찾았다. 새 정부와 함께 나라가 정상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우공이산의 자세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전진해간다면 모두가 자기만의 성공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광양만권 노사민이 상생 발전하는 축제의 장

노사민 화합한마당

‘1사 1마을 자매결연식’ 체결로 화합과 소통의 의미가 더해지다

광양만권 ‘노사민 화합 한마당’에서는
지역민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으며
상호 상생 발전과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 체결까지 훈훈하게 마무리되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권오봉)은 지난 5월 26일 광양읍 서천 변 일원에서 광양만권 노사민 화합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양만권 근로자와 지역민 1,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노사민 노래자랑, 입주기업 생산제품 전시 및 먹거리 나눔 부스 운영, 인기 초대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노사민 화합 한마당 행사의 노래자랑에는 입주기업 근로자와 지역주민, 유관기관 등 30개 팀이 예선에 참여했으며, 본선에서는 경쟁한 실력을 갖춘 8개 팀이 그동안 갈고닦은 노래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또 15개의 기업 및 유관기관의 생산제품 전시를 통해 지역민이 입주기업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3개 읍면에서 운영한 먹거리 나눔 부스에서는 지역주민이 준비한 막걸리 한 잔과 파전을 나누어 먹으며, 지역민과 입주기업 근로자가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울촌해룡산

단협의회가 공동개최하고, 1사 1마을 자매결연식까지 체결해 노사와 지역민의 화합과 소통이라는 행사의 의미가 한층 더해졌다. 특히, 1사 1마을 자매결연 체결식에는 울촌면 및 해룡면 8개 마을과 울촌산단에 입주한 8개 기업이 상호 상생 발전과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해 기업과 지역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울촌해룡산단협의회는 이번 행사가 광양만권이 노사민이 화합하는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지역임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며, 기업들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연결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회째를 맞이하는 광양만권 노·사·민 한마당 행사는 광양만권의 노·사·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노사와 지역민이 더불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노·사·민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

BUSINESS

01/

『해외 투자유치자문위원단』 초청
GFEZ 현장시찰

광양경제청과 투자유치자문위원단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광양경제청은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해외 투자유치자문위원(일본, 중국, 서구) 및 동반 잠재투자기업을 초청하여 GFEZ 현장시찰과 간담회 등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금번 현장시찰은 GFEZ 해외 투자유치자문위원 5명과 일본, 중국, 독일, 멕시코기업 등 6개사 동반 잠재투자기업 대표들을 초청하여 GFEZ의 비교우위 산업 인프라, 유망업종, 입주여건 등 투자환경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일본기업은 광양항 배후부지 내 글로벌 물류창고사업 분야, 중화권기업은 한국의 FTA 플랫폼과 광양항의 물류 이점을 활용한 콜드체인 및 금속 가공사업 분야, 서구권기업은 가공식품 물류 및 화학, 신소재분야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경제 환경 하에서 광양경제청의 투자유치 전략에 대한 의견을 해외 투자유치자문위원들과 공유하는 등 내실 있는 현장시찰이 되었다. 잠재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유치 및 기업 친화적 투자환경을 소개해 해외 투자유치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BUSINESS

02/

광양경제청, 「제5회 광양만권
CEO포럼」 성황리 개최
일자리 창출 및 고부가가치 소재 산업
투자 유치 탄력

광양경제청은 지난 3월 28일 순천 에코그라드호텔에서 「제5회 광양만권 CEO포럼」을 개최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권오봉 광양경제청장을 비롯해 울촌산업단과 해룡산단, 광양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CEO,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기업CEO 및 유관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어 '세상 공부와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로 前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김명환 청장의 특강이 이어졌으며, 포럼 참석자들은 최근의 대내외적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강의를 청강했다. 해룡울촌산단협의회 신명균 회장은 어려운 경영여건 하에서 입주기업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당면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권오봉 청장은 “광양만권 CEO 포럼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광양만권 입주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적극 펼치겠다.”고 밝혔다.

BUSINESS

03/

광양경제청, 제17회 가치공유 회의 개최
전문가 초청 전 직원 친절교육 실시

광양경제청은 4월 6일 제17회 「가치공유 회의」를 개최하고 김춘애(한국서비스 교육원 대표) 강사를 초청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금회 친절교육은 '성공하는 것엔 감동이 있다'라는 주제로 민원인 및 투자유치 고객에게 감동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청과 입주기업, 주민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특히 서비스 마인드



향상과 매력적인 친절을 위해 고객과의 감성 소통 방법 및 공식자의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한편 광양경제청에서는 고객만족 서비스의 일환으로 '부서별 민원처리 기간 단축률 목표관리제'를 운영한 결과, 법정처리 기간 대비 68%(전년대비 10%향상)로 단축하는 등 고객 만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BUSINESS

04/

세풍·울촌산업단지, 기업 투자처로 각광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개 기업 258억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광양경제청은 4월 20일 청사 2층 상황실에서 (주)광양만산업개발, (주)우성지앤에프 등 2개 기업과 258억 원, 고용인원 70명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협약식에는 (주)광양만산업개발 황수환 대표이사, (주)우성지앤에프 최민철 대표이사, 권오봉 청장, 여수시 최종선 부시장, 광양시 황학범 기업유치추진단장 등이 참석했다. (주)광양만산업개발은 울촌산업단지에 190억 원을 투자하여 26,194㎡ 부지에 재활용 골재 및 구조물 제조 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주)우성지앤에프는 세풍산업단지에



68억 원을 투자, 6,613㎡ 부지에 강화유리 제조 공장과 식품 제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강화유리 제조는 일반 유리를 열처리 후 강화유리를 생산하는 공정으로 대기오염 관련 배출이 없어 지역 주민의 대기오염 염려를 불식시키는 사업모델이다. 권오봉 청장은 “오늘 투자협약 체결은 세풍산업단지 기업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투자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과 울촌산단도 100% 분양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BUSINESS

05/

광양경제청,
중국 중남부지역 투자유치활동 전개
중국 정저우, 쑤안지역 한중 FTA활동
투자설명회와 화양지구 부동산
투자이민제 홍보

2개 기업 258억 원 투자



광양경제청은 4월 24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중남부지역의 허난성(河南省) 핵심도시인 정저우(鄭州)와 하이난성(海南省) 쑤안(三亚)을 방문하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여건을 설명하고 특히 한중 FTA 활용과 여수 화양지구 부동산 투자이민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광양경제청은 4월 24일 정저우 텐즈야오 호텔에서 중국 교통 운수협회와 공동으로 한국 FTA 플랫폼 활용 및 부동산투자이민에 관심 있는 중국기업 15여 개사를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했다. 동 설명회에서 허난텐샹물류유한공사(河南天翔物流有限公司)와 광양항 배후부지에 1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국제물류센터를 건설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Brief News



특히 이번 투자유치활동은 지난해 7월 5일자로 시행된 여수 화양지구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계기로 관광·레저 개발회사인 정저우 텐즈아오집단(天之瑶集团), 따사 오동텐(大小洞天) 등 대형 부동산기업 3개사를 방문하여, 여수 화양지구 개발 사업과 투자이민제를 소개하는 밀착형 투자 상담을 진행하였다. 광양경제청은 "FTA활용 투자설명회에서 중국기업들은 한국의 FTA 플랫폼 활용목적의 광양만권 투자 유망 사업 및 글로벌시장 진출 방안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정저우와 썬야 소재 부동산기업은 여수 화양지구 투자 이민제에 대한 관심과 현장시찰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밝혔다.

BUSINESS

06

광양경제청, 산업장 근로자 건강관리에 앞장
「찾아가는 건강돌보미제」로 건강한 일터 함께 만들어요

광양경제청이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의 건강 관리 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건강돌보미제」가 근로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건강 돌보미」 사업은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 중 유일하게 광양 경제청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차별화된 기업 지원 시책이다. 산단 내 중·소규모 기업체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여 건강하고 활기찬 일터를 만들고자 광양경제청이 인근 보건소 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다른 구역청에는 없다. 「찾아가는 건강 돌보미제」는 지난 2009년에 시작해 올해로 9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135개사 3500여명의 근로자에게



BUSINESS

07

광양 황금산단 진입도로 공사 본격 진행
산업단지 원활한 분양을 위한 기반 조성

광양시 황금동 일원에 조성되는 황금일반 산업단지(1.12km)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춰 산단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착수되었다. 황금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국비 283억원을 투입하여 북쪽으로는 지방도 865호, 동쪽으로는 광양항 서측 배후도로와 황금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 공사로 총연장 2.81km, 교량 2개소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황금산업단지는 총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대사성 질환 예방에 따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에는 광양배후단지 및 울촌·해룡산단 내 12개 기업체가 참여하게 되며 현재까지 (주)성화산업, 엠티에스, 달성(주), 스틸플라워 등 4개 기업체 170명의 근로자가 혈압·혈당·콜레스테롤검사와 심·뇌혈관 예방 교육에 참여했다. 아울러, 산업재해 등 재난 사고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자 심폐소생술 등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비 2,954억원을 투입하여 1,116천㎡를 조성할 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124천㎡와 고부가가치 및 미래성장 유망업종인 전기장비 제조, 1차 금속, 금속가공, 운송장비, 기계 및 장비제조 등 신소재 산업을 유치하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2020년 준공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금년 8월에 산업시설용지 일부를 분양할 계획이다. 권오봉 청장은 "황금산단 진입도로를 차질없이 추진 '19년까지 완공하여 산단과 광양항·고속도로 등을 연결하는 교통개선으로 입주기업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BUSINESS

08

광양만권경제청, 220억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세풍산업단지에 2개 기업 투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청)이

5월 26일 청사 2층 상황실에서 (주)OEC, (주)퀀템에마스 코리아 등 2개 기업과 투자 금액 220억 원, 고용인원 170명 규모 투자 협약(MOU)을 체결했다. (주)OEC는 세풍산업

단지에 170억 원을 투자하여 19,470㎡ 부지에 발전설비기자재 모듈 제조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며, 고용인원 70명으로 지역일자 리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정책에 따라 청정연료 발전소 건설시장의 성장과 발전설비기자재 모듈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성공적인 투자가 될 전망이다. (주)퀀템에마스 코리아도 세풍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에 50억 원을 투자, 16,500㎡ 부지에 전복 부안 도계장의 1차 가공 닭을 반입하여 포장, 라벨링 등 2차 가공 후 수출하는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식품 가공산업 특성상 고용예정인원이 100명으로 지역 일자리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권오봉 광양경제청장은 "투자협약 체결은 세풍산업단지의 투자 가치를 인정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선례로서 의미가 크다"며, "세풍산업단지의 조기 개발에도 청신호가 되는 만큼 두 기업의 투자가 조속히 실현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제무역도시의 중심
미래를 준비하며 전진하는 GFEZ

스스로 길을 밝혀 전진하는 광양만청

...산국은 꽃 점점의 형광으로 제 길을 밝히고
은사시나무는 우듬지*를 흔들어 길을 드높인다
동박새는 또 목청을 가다듬어 제 길을 노래하고
살쾡이는 튀는 발이 날래어 없는 길도 뚫는다...

우듬지*: 나무조리를 포함한 부분을 한 덩어리로 나타내는 말이다.
세워져 있거나 쌓여 있는 물건, 사물의 확대기를 '우두머리'라고 하
는데, 우듬지는 '나무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나무나 대
의 우두머리에 있는 가지를 '우족'이라고도 부른다. 큰 나무의 우두
머리는 우듬지, 작은 나무의 우두머리는 우족이라고 보면 된다.



“우리 청은 스스로 빛을 만들고 없는 길도 뚫는 마음으로 다각도의 투자유치 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또한 신산업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국제무역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기꺼이 노력하겠습니다.”

담양 출신 고재종 시인의 작품 '길'의 일부입니다. 구절마다 섬세한 힘이 느껴집니다. 저마다 자기 에너지를 최고로 뽑아내는 여름 숲이 떠오릅니다.

스스로 길을 밝히고 없는 길도 뚫어 가는 힘을 담고자 합니다. 우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여름 숲처럼 거침없이 나아가고 커갈 것입니다.

우리청의 지난봄은 분주했습니다. 먼저, 광양항금산단이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지연되어 오던 개발이 궤도에 올라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자유치에 주력하여 광양항의 물동량 창출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광양만권이 기업하기 좋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과감히 펼쳤습니다. 좋은 씨앗도 뿌리고 알토란같은 성과도 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지난 4월 우리 청은 일본 후쿠오카와 오사카, 중국 중남부지역을 찾아 투자유치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여수 화양지구에 부동산투자이민제가 도입돼 전망이 더욱 밝습니다. 이에 맞춰 중국 관광레저 개발회사인 부동산 기업을 방문해 투자 상담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활동은 속도와 깊이를 더할 것입니다.

국내기업 투자유치 성과도 있습니다. 최근 ㈜광양만 산업개발이 울촌산업단지에 190억 원을, ㈜우성지엔에프가 세풍산업단지에 68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광양만권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함께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두 산단이 기업들에게 좋은 투자 사례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청은 최선의

지원을 할 것입니다.

스스로 빛을 만들고 없는 길도 뚫는 마음으로 다각도의 투자유치 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온 국민의 염원이 한데 모여 만든 성과인 만큼,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훈훈한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여수 경도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편입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 광양만권은 산업, 관광, 정주 환경 삼박자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여수 경도는 도심 관광지로서 잠재성이 큼니다. 이러한 여수 경도까지 우리 광양만권으로 편입되면 광양만권은 날개를 다는 셈입니다. 광양만권 동북아시아 시장의 관문이자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청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청은 광양만권 노·사·민 화합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참석한 노·사·민 모두가 뜻깊은 화합의 시간을 누렸습니다. 이날 우리가 서로 확인한 소통의 힘은 광양만권의 성장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마당에 참여해주신 입주기업 대표분들, 근로자분들,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멀리서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름 숲에서 흘린 땀은 가을 숲의 결실로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신산업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국제무역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우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기꺼이 구슬땀을 흘립니다. 더욱 풍성한 결실을 가지고 가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 제 6대 전라남도 여수시 시장
- 대검찰청 강력부 부장
- 제 55대 광주지방검찰청 지검장
- 제 27대 창원지방검찰청 지검장
- 제 32대 범죄예방정책국장

주철현 여수 시장

Q 시장님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검사장 출신 최초의 기초단체장입니다. 대표적으로 호주제 폐지법 발의, 벌금 대체 사회봉사제 도입, 성폭력범죄자 전자발찌 최초 부착 등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 하다 퇴직 후 '시민 여러분이 시장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민선 6기 새 여수 시대를 열어 시민위원회, SNS 소통방, 시민 공무원평가제 등을 시행해 시민참여 소통 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정을 이끌어오면서 '2년 연속 관광객 1,300만 돌파', '원도심 활성화', '경도 미래에셋 1조 원 이상 투자', 전남 최초 '행복교육지원센터' 개원, 2년 연속 '국제해양관광도시' 부문 대상 수상으로 우리 여수의 위상을 높이는 데 함께 했습니다.

Q 지난 1월 여수 경도가 개발과 관련해 미래에셋컨소시엄과 투자협약이 체결 되었습니다. 향후 경도 개발에 대한 계획은 무엇이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A 현재 경도 해상교량 건설, 각종 국세와 지방세 감면과 인허가 처리를 위해 경도를 경제자유구역 편입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6성급 리조트 호텔 및 클럽하우스 건설, 워터파크 및 페이웨이 빌라 건설, 리테일빌리지 및 케이블카를 건설하는 등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1조 7천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1만 5천 개 일자리 창출로 30명 규모의 중소기업 500개를 유지하는 것과 같은 고용 창출 효과를 냅니다.

Q 여수 경도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편입은 경도 개발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대 효과는 무엇입니까?

A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해운물류 중심부에 위치하였다는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5개 지구 21개 단지가 물류와 관광, 생산 기능 등의 특화단지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화학 국가산단, 포스코 광양제철소,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등 비교우위의 산업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기업 친화적 환경을 충분히 보유하여 투자가치가 뛰어난 경제자유구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이와 같은 강점을 배경으로 상당한 수의 기업유치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보다 국내기업의 투자유치가 많다는 것이 다소 아쉬운 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 잉커우시에 한-중 홍보관을 설치하여 맞춤형 해외 투자 유치 활동을 강화하는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유치 및 개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광양만권은 더욱 활기 넘치는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 도시로 성장할 거라 기대합니다.

Q 광양만권을 위해 여수시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 저는 지난 2014년 7년 만에 재개된 제20회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에 참석해 협의 안건으로 '3市 광역관광 활성화', '여수공항 활성화 지원 공동 대응' 등 3건을 제시했습니다. 광양시 역시 '광역교통망 시스템 구축'을 약속하였고, 광양항 활성화 지원 공동 대응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여수상공회의소는 지난달 지역민의 삶 개선과 도시

연합 관련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가칭 광양만권 발전을 위한 연구자 모임'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Q 민선 6기 출범 후 여수시가 2년 연속 1,300만명이 찾는 관광도시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여수시의 관광분야 성과는?

A 민선 6기 들어 전남 관광을 선도하기 위해 '여수 밤바다', '남만 버스킹', '해양테저스포츠 메가 여수'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에 작년에 국내에선 드물게 관광객 1,316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최초 해상 케이블카와 주야간 2층 시티투어버스, 밤바다 해상 유람선, 남만 포차 등 여수만의 독특한 관광 콘텐츠들을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수많은 숙박시설과 식품접객업소, 아파트가 지어지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여수가 대한민국 해양테저스포츠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Q 여수시는 해양 관광도시로써 다양한 정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점을 둔 시정은 무엇입니까?

A 미래에셋이 1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경도 해양관광 단지 개발사업과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웅천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 국민생활체육 해양테저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국립 해양 기상과학관 건립 등 현안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참 주인 되고 시민이 행복한 소통 도시를 만들기 위해 2,3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기타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의견은?

A 우리 여수시가 2년 연속 관광객 1,300만 시대를 열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국가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2년 연속 「국제해양관광도시」 부문 대상도 받았습니다. 전국의 젊은이들과 관광객들이 여수로 몰려들고, 불 꺼진 원도심과 지역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수가 대한민국의 대표 해양관광도시로, 국제해양관광의 중심도시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노라 자부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난해처럼 변함없는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에 더 많은 참여와 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광양만권을 위한 상생협력

지자체 간의 소통과 노력으로 성장하는 광양만권

주철현 여수 시장

끝없는 도전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신뢰받는 기업

(주)썬테크

(주)썬테크는 새로운 형태의 영구자석발전기 제작기술을 개발했다. 세계 3대 발명대회(미국, 스위스, 독일)에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했고, 국내의 가장 명성 있는 신제품인증(NEP)을 획득했다. 우수제품인증까지 받아 2007년부터 생산제품을 상용화했다. 현재도 '기술개발은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확실한 길'이라는 신념하에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자가 진단형 정밀 동기 발전기

일반형 발전기

100% 국산 부품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발전할수록 역설적으로 '기본'에 관심이 쏠린다. 기술력으로 고객을 만족하게 하는 기업은 많지만, 고객의 마음을 알고 신뢰감까지 느끼게 해주는 기업은 드물다. "최고를 지향하기보다는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썬테크의 구호가 눈에 띄는 이유다.

어느 때보다 '공감 능력'이 중요하게 평가되는 시대에 기본에 집중하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1996년 설립된 썬테크는 안전과 직결되는 에너지원, 발전기 전문 제작업체다. 창립 이래 20여 년 동안 고객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신뢰성 있는 발전기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초로 고효율 영구자석 발전기를 개발하고 국내 유일의 신제품 인증 발전기 보유 업체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광양 만권에서 더욱 성장하는 기업, 썬테크의 임직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썬테크에서 생산하는 제품 종류와 주력제품은 무엇인지 소개바란다.

썬테크는 발전기 전문 제작업체로서 영구자석을 응용한 고효율 발전기를 주력 생산한다. 주요 생산 제품은 군수 시장을 타깃으로 한 영구자석 발전기와 민수시장(민간)을 대상으로 한 정밀 동기발전기가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겨냥한 풍력발전기, 수력발전기가 있다.

생산하는 제품 중 영구자석발전기는 회토류를 이용하여 개발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원리로 가능한지? 영구자석발전기가 기존 코일 발전기에 비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궁금하다.

발전기는 도체와 비도체간의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생성하는 제품이다. 당사에서 개발 판매하고 있는 발전기는 도체를 형성하는 방식을 영구자석을 이용하는 것으로 일반 코일형 발전기에 비해 높은 효율(최소 95% 이상)을 가진다. 그래서 발전기의 수명이 25년 이상으로 길고, 깨끗한 품질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영구자석의 주원료는 회토류이며, 코일과 코일을 강제로 돌리는 방식 대신 전기를 발생시키는 성분이 들어있는 회토류를 사용한 것이다. 회토류의 가장 큰 장점은 효율이 높다는 점인데, 연료가 기존 발전기 대비 시간당 15~20% 정도 절감된다.



이선휴 대표이사

군수 시장에 공급되는 영구자석 발전기는 소형화 경량화 시킬 수 있는 장점까지 있다. 발전기의 전력을 사용하는 부하 측의 단락이나 쇼트와 같은 외부의 돌입전류에도 고장이 없는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군의 전술 운용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썬테크는 지속적인 R&D와 연구 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지속 성장에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 요소는 무엇인지?

연구개발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회사가 지속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직원들의 힘이 크다.

회사에 연구인력이 많은데, 과제만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 실제 상용화할 수 있는 제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결과가 좋다. 연구소 직원들은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이 자유롭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도 돋워지고 또 얽매인 틀에 사로잡히지 않다 보니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나온다.



쎄테크는 20여 년 동안 오로지 발전기에만 매진하였습니다.
발전기의 정형화된 틀을 깨고 독자적인 제어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초고효율 발전기를 국내 및 세계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쎄테크의 강점은 무엇인지?

무엇보다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탄탄한 기술력이 강점이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따른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여느 영세업체와 중소기업들과 같은 열악한 근로 기반에서도 끝까지 믿고 노력해준 직원들의 높은 열정과 열의, 그리고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을 이룰 수 있었다. 대표이사의 저돌적인 운영 방식에도 묵묵히 동참해준 직원들이 오늘까지 함께한다는 것이 오늘을 지탱하는 강점이다.

기업이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군수 시장은 일반적으로 진입하기가 어려워 많은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필요로 한다. 신규제품을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2013년부터 국내의 체계업체와 함께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발전기 개발을 추진해 내년 양산을 앞두고 있다. 산업용 발전기 및 군수용 발전기와는 별도로 풍력발전기나 소수력 발전기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풍력발전기의 경우 국내에서 개발되지 않은 20kW급 수직형 풍력발전기를 개발하고 있고 인증

을 거쳐 국내/외에 판매하기 위한 기본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있다. 수력 발전기는 300kW급의 소수력 발전기 개발과 45MW급의 중 수력 발전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공장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울촌산단의 장점은?

울촌산단은 순천, 광양, 여수의 3개 시에 걸쳐있는 산업단지이다. 이로 인해 3개시에 거주하는 인원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위치이며, 산업도로의 확보로 물류 운송이 유리한 지역이다. 산업단지 조성 초기에 비해 산단 협의회 및 광양경제청의 많은 노력으로 산단 내의 복지시설도 증대되고 환경 조성 및 산업활동에 많은 이점을 확보해 나아가고 있다. 조선, 금속, 가공, 제조 등 다양한 업종이 포진되어 있으므로 상호 간에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산단 내 입주업체들의 화합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병행하는 물론, 관련 기관 및 관공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해소해 주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기업들이 직접 해결할 수 없는 점들을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광양만권에 입주해있는 기업으로서 제시하는 광양만권의 발전상이 있다면?

광양만권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유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지역에 위치한 많은 기업들이 보다 많은 사업을 활성화 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완고하게 갖추어 주었으면 한다. 울촌산단 및 광양만권에는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매우 많이 포진해 있다. 하지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가공이나 원부자재와 같은 기반 산업들이 매우 부족하다.

지역 내에 위치한 업체들이 있지만, 기술력과 시설 설비의 노후화로 인하여 현대 산업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양질의 제품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대분류에 해당하는 포션을 확대하기보다는 산단에 위치한 기업과 업종들이 상호간에 윈윈할 수 있는 저반을 확보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

쎄테크의 앞으로의 비전, 목표를 듣고 싶다.

발전기 업계에서 기술력으로 승부하고 자타가 인정하는 발전기 기술력 선두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국내의 기술력으로 개발된 제품을 전세계 소비자들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꿈이다. 특히 지속성장의 핵심인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하려 한다. 이와 더불어 직원들이 행복을 꿈꾸며 일할 수 있는 회사 문화를 만들어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문화를 가진 기업을 만들어 가고 싶다.



윤은정 - 관리부 차장 / 박현후 - 관리부 부장

임직원들과 속닥속닥

- Q1** (주)쎄테크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A1** **윤은정**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발전기 업계에서 최초로 신제품(NEP) 인증을 받았으며 국내외에서 다수의 특허를 받은 높은 기술력을 가졌다는 것이 강점이다.
박현후 직원들끼리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단합이 되어 일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 Q2** 쎄테크만의 자랑할 만한 기업문화가 있다면?
- A2** **윤은정** 지속적인 로드맵(목표, 계획)을 통한 연구개발과 사업화로 사업역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직원들 간의 단합과 사기 증진을 위한 행사를 함으로써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관계로서 함께 어울리고 소통을 할 수 있다.
- Q3** 회사와 관련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 A3** **윤은정** 2015년 4월 전남지역 최초로 "중소기업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에 상장되었다. 그때 한국거래소에 직접 참가하며 그 순간을 함께 하며 기쁨을 가졌는데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박현후 회사에 들어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 모든 순간에 회사와 동료들이 함께해주었다. 인생을 함께할 수 있는 회사에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다.
- Q4** 회사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A4** **윤은정** "직원을 배려하고 직원을 격려하는 마음가짐으로 운영하는 기업은 성공한다"는 말이 있다. 지금처럼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배려하게 된다면, 가장 좋은 동료이자, 친구가 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쎄테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박현후 코넥스 상장 이후 코스닥 상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회사와 직원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서로가 주어진 임무에 책임을 갖고 맡은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전남 관광·레저 분야 사상 최대 규모로 개발

국제 해양관광지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경도해양관광단지는 6성급 호텔, 해상빌라, 마리나 시설, 테마파크 등을 갖춘 아시아 최고의 명품 복합리조트로 조성될 계획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이 추진 중이며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개발과 외국 자본 유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도는 아시아의 모나코로 개발돼 전 세계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가 될 것이다.



1조 7천억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인근 관광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창출

그레이스 켈리의 추억이 남아있는 도시국가.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로 연중 기온이 10~24℃. 연간 60일 정도만 비가 내리는 도시. 수입 대부분은 관광산업, 컨벤션산업, 예술을 연계한 페스티벌과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오는 곳. 바로 모나코를 묘사한 곳이다. 지난 1월 9일 국내 글로벌 투자그룹인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은 전라남도, 여수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1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한 투자 협약식에서 “경도를 한국의 모나코로 개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모나코는 해안을 낀 도시국가인 데 비해 경도는 여수 시내와 돌산도 사이 도심에 위치한 섬이고, 모나코는 주거지역인 반면 경도는 관광지구로 개발된다는 차이만 있다. 경도는 연중 온화한 기후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2009년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시설 및 관광단지」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골프장 27홀, 콘도 100실, 오토캠핑장 등이 조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경도해양관광단지의 경제자유구역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외국 자본의 유치도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경도해양관광단지의 본격적인 개발 사업을 통해 약 1조 6,800억 원의 생산과 14,400여 명의 고용을 유발하고 여수세계박람회장, 순천만 국가정원 등 인근 관광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창출할 것이다. 경도에는 6성급 호텔, 해상빌라, 마리나 시설, 테마파크 등을 갖추으로써 전 세계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로 개발해 나갈 것이다.

Local News

글 편집실

여수시

여수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으로 체험객 손짓
여수시가 지난해 많은 관광객의 호응을 얻었던 해양레저스포츠 교육·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6월 2일부터 오는 9월 말까지 소호요트마리나, 웅천해변, 박람회장, 만성리 해변에서 시민들에게 딩기요트, 윈드서핑, 카약 등 10개 종목의 체험 기회를 제공키로 한 것. 특히,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패들보드와 드래곤 보트 종목이 추가됐다. 또 올해부터는 체험 장소가 박람회장까지 확대돼 총 4곳에서 해양레저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게 됐고, 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의 'ok통합예약 포털'을 통해 사전예약도 가능케 되어 불편함이 줄었다. 시 관계자는 "엄선한 체험프로그램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광양시 "청년정책 우선, 만남의 장 점차 확대할 것"

정현복 광양시장의 청년들과 일자리와 결혼, 주거문제에 대한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광양시와 광양청년회의소는 지난 5월 19일 '청년이 원하는 청년정책'이라는 주제로 광양JC 2층 대회의실에서 '광양JC 시장님 초청 토크쇼'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청년에게 질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해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결혼문제와 청년주거 문제를 청년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겠다"고 말했다. 이현성 청년정책팀장 역시 "이번 대화는 시장의 주역이자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들은 첫 번째 행사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만남의 장을



순천시

활기 넘치는 시장, 청년 창업을 위한 '불타는 청춘옷장' 개점
순천시와 (재)전남테크노파크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의 도정에 발맞춰 지난 5월 25일 옷장 국밥 상가 2층에 '불타는 청춘옷장'을 개점했다. 순천의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지역 명소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청춘옷장은 전통시장의 유희점포에 청년상인 점포를 집적화해 침체한 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청년들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불타는 청년 창업공간 청춘옷장은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창업공간으로써 사회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젊은 청년들의 문화를 교류하는 장소로 새롭게 탈바꿈됐다. 불타는 청춘옷장은 휴일 없이 365일 운영할 계획이며, 청년들 스스로가 협의체를 갖추어 운영한다.

광양시



확대해 청년시책 발굴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하동군



'지리산 회남재 숲길' 전국 10대 걷기 명소 선정

하동군은 '지리산 회남재 숲길 걷기'와 '지리산 둘레길 걷기 축제 소풍'이 2017 가을 걷이축제 지원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행사가 정부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경남에서 유일하다. 이에 따라 회남재 숲길 걷기와 소풍은 정부로부터 각각 2400만 원과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회남(回南)재'는 경의사상(敬義思想)을 생활 실천철학으로 삼은 조선 시대 선비 남명(南冥) 조식(曹植 1501~1572) 선생이 산청 덕산에서 후학을 양성하던 중 악양이 명승지라는 말을 듣고 1560년경 이곳을 찾았다가 돌아갔다고 해서 붙여졌다. 회남재 숲길 걷기는 '슬로시티 하동'의 이미지에 걸맞은 맨발 걷기의 세계적 명소로 육성하고자 2014년 시작돼 올해로 4번째 열린다.

입주기업

밸런스인더스트리,
대한민국 중소기업청장상 수상

㈜밸런스인더스트리가 '2017년 제3회 대한민국 중소기업대상'에서 중소기업청장상(글로벌 부문)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밸런스인더스트리는 국내(서울, 인천, 광양, 부산)와 일본(도쿄, 후쿠오카, 오사카)에 법인을 두고 있으며 현재 광양항 배후단지에 물류거점을 구축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홍콩 등에 현지법인을 두고 아시아 자원 재활용 시장을 형성하는 한편, 재활용 자원 국제교류 활성화도 꾀했다.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밸런스인더스트리는 명실상부한 자원재활용업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1월에는 관세청으로부터 '2017년 제1회 수출입안정관리 우수업체(AEO)'로 선정되기도 하며, 그 공로를 인정받기도 했다.

河東

여름에 만나는 자연 푸른 향기의 하동

무더운 여름,
시원한 바람과 함께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자상낙원은 없을 것이다.
푸른 여름 향기 가득한 하동에서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자.

바다와 만나는 공간, 하동 대도

아름다운 바다와 푸른 자연의 모습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 하동 대도, 더위에 지친 마음을 달래줄 곳으로 선택한 하동의 첫 여정지다. 노랑항에서 10여 분 배를 타고 들어가면 보이는 작고 아담한 섬으로 푸르른 남해의 풍경이 한눈에 가득 담긴다. 그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 있다면 복잡한 도시에서 느꼈던 답답한 마음이 금세 녹아내린다. 대도 마을 왼쪽 해안 길을 따라 걸어가면 이국적인 분위기의 빨간 풍차가 눈에 들어온다. 풍차 앞 해안

산책로를 걷다 보면 잔잔한 파도 소리가 들리며 물위를 걷는 듯한 기분마저 들게 한다.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산책로 아래 갯벌은 조개, 고둥, 돌게 체험장이 된다. 아름다운 경치는 물론이거니와 체험까지 즐길 수 있으니 대도의 바다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워터파크에서는 물놀이를 하며 무더위를 날릴 수 있고, 마을 앞바다에서 운영 중인 낚시터에서는 월척을 낚는 기쁨도 느낄 수 있다.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는 여름을 즐기기에 충분한 즐거움과 활력을 안겨준다.





천혜의 아름다움과 만나다.

구재봉 자연휴양림

산과 강, 바다를 모두 눈에 담을 수 있는 곳. 구재봉 자연휴양림으로 향해본다. 울창한 나무들이 자라 숲을 이루고 있으며 지리산과 섬진강의 아름다운 경관을 모두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휴양림 내에는 생태 숲을 비롯해 모노레일, 어드벤처 등 자연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문학과 동심을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코스도 따로 마련되어 있다. 휴식을 취하며 건문을 높일 수 있는 도서관이 있고 여름이면 뽕농을 수 없는 물놀이장도 있어 재미를 한층 더해준다. 다양한 체험을 즐긴 뒤엔 졸졸 흐르는 계곡물 소리와 산속에서 울리는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수변데크를 걷는다. 마음을 비우고 걷다 보면 금세 구재봉 봉우리에 도착한다. 지리산 기슭에서 야생 녹차 밭과 삼화 저수지를 내려다보며 드넓은 자연의 모습을 눈에 가득 담아본다. 저 멀리 이어져 있는 능선들과 함께 일렁이는 녹색의 물결은 일상에서 느꼈던 답답함과 긴장감을 지워주고 여유와 편안한 마음을 그려준다.



시원한 여름 산책길, 하동송림공원

섬진강대로를 따라 북쪽으로 가다 보면 녹색 내음 가득한 산과 청량한 빛의 강변이 눈에 들어온다. 그 길목에 위치한 곳이 바로 하동 송림이다. 하동 8경이자 천연기념물 445호인 하동 송림은 조선 영조 21년 당시, 섬진강 변의 바람과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 조성한 숲이라고 한다. 넓은 솔숲은 소나무의 선비 같은 기상을 본받게 해주며 송림의 뜻깊은 유래를 와 닿게 해준다. 입구에 들어서면 탐방객을 맞이하는 맛이 나무라는 이름의 소나무가 눈에 들어온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은 마치 송림 공원에 들어서는 이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 같이 보인다. 그

윽한 솔향을 맡으며 걷다 보면 가장 오래된 원앙 나무가 보인다. 두 가지가 붙어 있는 연리목으로 쓰다듬으면 부부 금실이 좋아진다는 말에 어루만지고 가는 이들도 제법 보인다. 넓은 백사장과 파란 섬진강 물결을 따라 걸으면 마치 자연이 한 폭의 그림을 선물해주는 것만 같다. 숲길을 걷다 벤치에 앉아 하늘 높이 솟아있는 소나무와 바람 따라 흘러가는 섬진강을 바라보며 잠시 휴식을 취해본다. 솔숲만의 청량함은 여름의 더위를 잊게 해주고 바람과 함께 시원함마저 건네준다. 가만히 있어도 절로 마음이 비워지고 개운해지는 곳으로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섬진강 따라 느끼는 하동의 맛, 하동 재첩 특화마을

하동 송림까지 이어지는 섬진강변은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곳으로 풍부한 먹을거리가 가득하다. 그중에서도 하동의 별미인 재첩을 빼놓을 수 없다. 맑고 깨끗한 유역에서만 자연 서식하는 재첩은 하동 여행 시 꼭 먹어야 하는 대표 음식이다.

하동군청 진입로 앞 도로 쪽으로 가면 하동 재첩 특화 마을을 볼 수 있다. 재첩 모양의 건물들이 도로 양쪽으로 늘어서 있고 5곳의 음식점과 휴게실, 전망대, 주차장이 갖추어져 있다. 이곳에서 재첩으로 만드는 음식은 다양하다. 재첩국의 뿐만 국물에 재첩과 부추가 가득 들어가니 마치 푸른 빛깔의 섬진강변을 보는 것만 같다. 한 숟가락 먹어보니 깊고 진한 맛의 국물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정갈하면서도 시원한 국물은 해장에 딱 좋을 듯싶다. 오랜 세월 할머니들이 양동에 재첩국을 끓여 새벽부터 이곳저곳을 다니며 '재첩국 한 그릇 사이소~'를 외치던 건 아마 해장에 좋은 재첩국의 효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 않았나 싶다. 재첩국뿐만 아니라 재첩 알갱이와 초고추장 등과 함께 비벼 먹는 재첩회 덮밥도 하동에서만 먹을 수 있는 별미다. 무더운 여름철 뚝뚝 떨어지는 입맛을 돋우고 싶다면 섬진강 물빛이 나는 재첩 음식을 맛보는 걸 추천한다.



Festival

글 편집실

시원한 바람 속 물길따라 떠나는 여름 축제 & 문화행사



8.5~8.6 하동 가로내 여름축제



8.11~8.12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



9.15~9.17 광양 전어축제

8.18~8.20 순천 문화재 달빛야행



하동 가로내 여름축제

오는 8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청정 강물이 흐르는 횡천강에서 하동 가로내 여름 축제가 개최된다. '다슬기와 반딧불이의 조화'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대한민국의 알프스 하동에 걸맞게 다양한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축제에 앞서 횡천강에서는 물 미끄럼틀과 에어바운스 등을 설치해 피서객들을 맞는다. 맑고 깨끗한 횡천강에서 자라는 다슬기·은어·피리 잡기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 활동이 준비되어 있으며 횡천면의 주요 특산물을 전시하고 판매하기도 한다. 맑고 깨끗한 자연의 모습이 아름다운 하동에서 무더위를 날리고 시원함을 만끽해보자.

📅 2017.08.05(토) ~ 08.06(일) / 2일 간
📍 횡천강 고수부지 및 횡강정 일원
☎ 055-880-6146 (가로내축제 추진위원회)
🌐 <http://tour.hadong.go.kr>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여수 밤바다 불꽃 축제는 여수의 밤바다를 환하게 비춰줄 한여름 밤의 축제이다. '여수의 낭만'이라는 주제로 이순신광장 앞 해상일원에서 개최되며 이전보다 더 알찬 구성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 여수 밤바다하면 빼놓을 수 없는 버스킹 공연이 준비되어 있고 해외 국이 참가한 불꽃 쇼는 여수 밤바다를 화려하게 수놓으며 눈을 즐겁게 해준다. 음악과 레이저, 특수연출을 사용해 진행되는 불꽃 쇼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무더운 여름, 여수 밤바다의 낭만과 아름다움을 느끼려 여수로 떠나 보는 건 어떨까?

📅 2017.8.11(금) ~ 08.12(토) / 2일 간
📍 이순신 광장 및 장군도 앞 해상
☎ 061-659-4742 (여수시 관광과)
🌐 <http://tour.yeosu.go.kr>

순천 문화재 달빛야행

순천에서 문화와 야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달빛 야행이 펼쳐진다. 이번 축제는 순천의 도심 속 문화재와 문화시설에 빛을 더한 야간 탐방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공연과 도심 속 예술가들의 숨결이 함께한다. 또한 순천향교, 옥천서원 등 옛 순천부 읍성 내 전통 문화유산과 순천기독교 역사박물관, 순천조지와초기념관, 순천 매산관 등 100년 전통의 기독교 선교 및 교육시설을 탐방할 수 있다. 1000년 동안 잠자던 순천향교의 담장을 환하게 비추는 불빛은 한여름 밤의 더위를 설렘이란 단어로 가득 채울 것이다. 은은한 달빛한 조각과 함께 아름다운 여름밤을 즐기러 순천으로 떠나보자.

📅 2017.08.18(금)~08.20(일) / 3일간
📍 순천 문화의 거리, 순천시 매산동 일원
☎ 061-749-6798 (순천시청 문화예술과)
🌐 www.suncheon.go.kr

광양 전어축제

광양 전어축제가 오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매년 개최되는 광양 전어축제는 올해로 18회를 맞이해 섬진강의 역사와 문화 관광, 먹거리를 다채로운 공연과 시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맑고 깨끗한 섬진강의 물길과 남해의 바닷물이 만나는 섬진강 망덕포구 일원에서는 가장 맛있는 전어를 만날 수 있다. 고소한 향과 맛이 일품인 전어를 맛보며 남도의 풍류를 즐길 수 있는 망덕포구에서 섬진강의 아름다운 풍광을 함께 느끼는 것도 좋다.

📅 2017.09.15(금)~09.17(일) / 3일간
📍 광양시 진월면 망덕포구 일원
☎ 061-797-2606 (광양 전어축제추진위원회)
🌐 www.gwangyang.go.kr/tour_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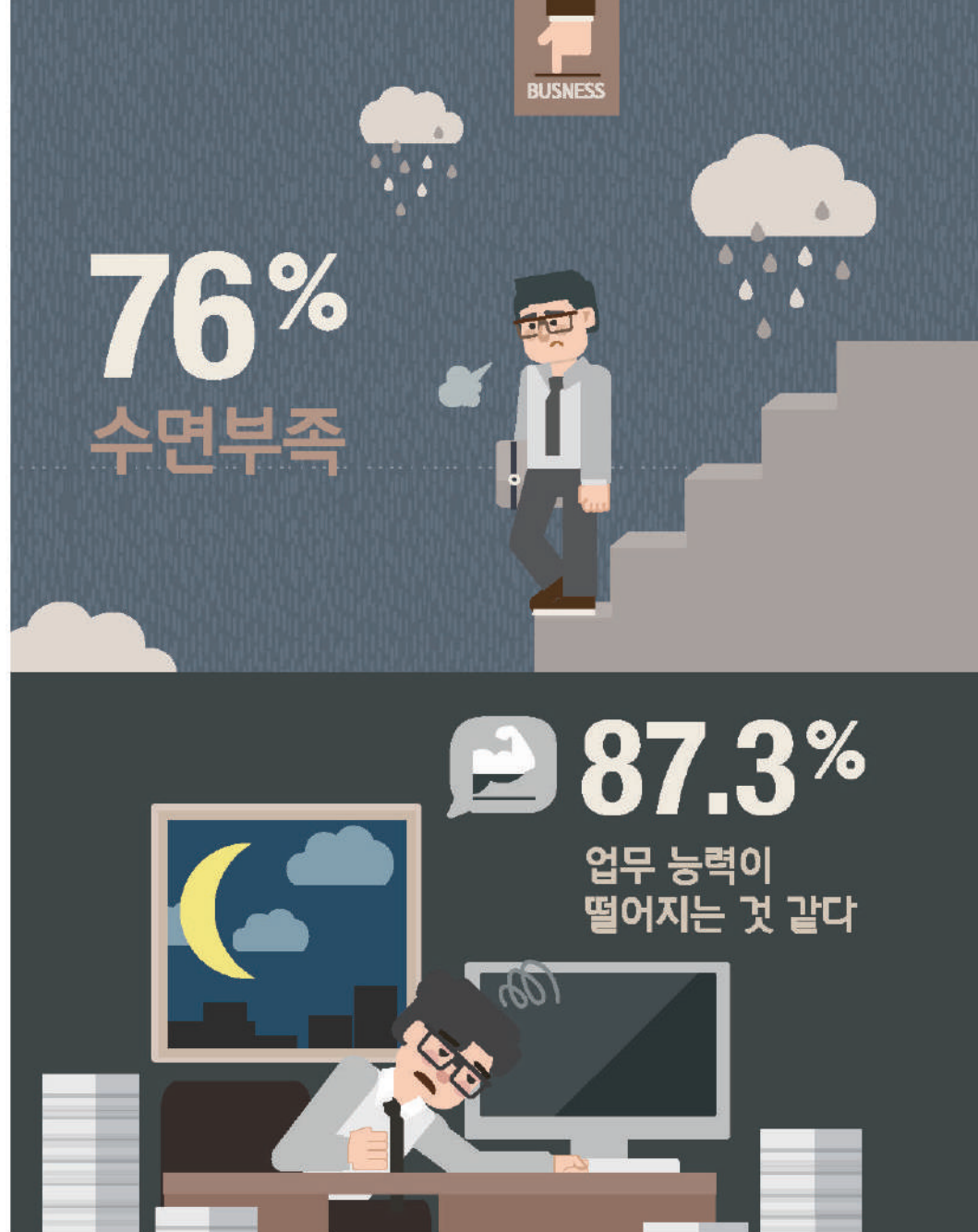
업무시간에 꾸벅꾸벅 졸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예상은 볼 보듯 뻔하다.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시간이 손실될 뿐만 아니라 상사의 눈초리에 들기도 쉽다. 바쁜 직장인에게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은 바로 수면이다.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수면은 건강에 있어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생산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직장인이 대부분이다. 업무 능력을 올리면서 효율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수면 생활 방법을 찾아보자.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건강한 수면 생활법

Ⅰ 직장인의 수면생활

한 매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의 76%가 평소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답했다. 또한, 수면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직장인은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87.3%로 나왔다. 그만큼 업무 능력에 있어서 수면은 아주 중요한 요인에 속한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피로감도 늘고 업무 능력 또한 저하된다. 업무 스트레스, 잦은 야근과 회식 등으로 인해 직장인의 수면 생활은 리듬이 깨져가고 있다.



직장인의 졸음 대처법

회사에서 졸음이 느껴질 때 직장인은 어떻게 대처할까? 한 매체 조사에 따르면 '최대한 버틴다'가 51%로 가장 높았고 '커피, 에너지 드링크 등 음료를 마신다'가 45%, '밖에 나가 바람을 쐬거나 스트레칭을 한다' 36%, '흡연을 한다'가 20%로 뒤를 이었고 이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졸음을 대처했다.

수면 부족과 기업의 생산성과의 관계

- 근로시간 손실 : 1인당 하루 평균 약 2시간 40분 시간 손실 (연간 711시간 31분)
- 비용 손실액 : 연평균 1천 586만 4천 365원

근로시간 손실

근로시간 손실로 인한 손실액



1인당 하루 평균
2시간 40분 정도 시간 손실
연간 711시간 31분



연평균
1,586만 4,356원

대한수면의학회

Ⅱ 건강한 수면 생활 방법

수면은 건강뿐만 아니라 기분 등 우리 생활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충분한 수면은 맑은 정신을 가지게 하고 하루를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신체활동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직장에서 지키는 수면 생활 TIP



1.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잠깐이라도 햇볕 쬐기
2. 점심시간 이후에는 커피, 초콜릿 등 카페인 들어간 음식은 피하기
3. 간단한 스트레칭과 산책하기

집에서 지키는 수면 생활 TIP



1. 잠자는 시간과 잠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여 패턴 유지하기
2. 반신욕이나 족욕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3. 잠자리에서는 소음과 빛을 완전히 차단하기
4. 잠자기 3시간 전까지 음식은 금물



잠에 관한 Q&A

Q 모자란 잠은 한꺼번에 몰아서 잔다?

A 주말에 몰아서 잠을 자는 것은 생체 리듬을 깨트려 오히려 잠을 자도 더 피곤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몰아서 자는 것 보다는 1~2시간 일찍 잠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Q 꿈을 자주 꾸는 것은 숙면을 해치는 것이다?

A 꿈은 렘(REM)수면 상태에서 꾸게 되는데, 보통 1시간 30분 내외로 짧다. 사실상 꿈을 꾸지 않는 시간이 꿈을 꾸는 시간보다 길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 렘(REM)수면 시간이 지나치게 늘어나거나 꿈이 많아지면 잠을 푹 못 잔 느낌을 갖게 되어 숙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Q 술은 수면에 도움이 된다?

A 잠이 쉽게 들 수는 있다. 하지만 푹 자기 어렵고 자주 깰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수면의 질도 나빠진다.

똑똑하게 알고 쓰자

현명한 신용카드 활용법

평균 우리나라 사람들은 4.5장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용카드는 우리 소비 생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여러 번씩 사용하지만, 신용카드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소비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잘 활용하면 득이 되는 신용카드 활용법을 알아봅시다.

신용카드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1. 본인의 지출성향 확인하기

자신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업종이나 항목·분야에 혜택과 서비스를 많이 부여하는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쇼핑물을 자주 이용한다면 해당 인터넷 쇼핑물 제휴카드를 발급받아 쇼핑물 이용금액에 대한 할인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본인의 월평균 지출 규모 확인하기

월평균 지출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실적조건을 채우기 어렵게 되고 혜택을 못 받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때는 본인의 지출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편의성 vs 안전성

카드를 여러 장 보유할 경우 사용처에 따라 무료입장, 할인 혜택 등 편의성을 높일 수 있지만, 분실·도난에 따른 위험성이 커집니다. 여러 장의 실물카드 소지에 따른 불편을 생각한다면,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연회비 고려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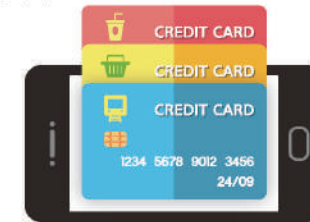
연회비가 비싼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연회비 부담과 부가서비스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 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해외겸용 카드를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겸용카드보다는 연회비가 저렴한 국내 전용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국내전용 카드가 해외겸용카드보다 2,000원~5,000원 정도 낮음

5. 상품안내장의 이용조건 확인하기

일반적으로 카드사들은 혜택 위주로 상품을 홍보하기 때문에 이용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명한 소비를 위한 똑똑한 신용카드 활용법

1. 꼭 필요한 카드만 발급

사용하지 않으면서 여러 장의 카드를 소지할 경우, 분실, 도난에 따른 부정 사용 위험 등이 발생 가능! 신용카드는 꼭 필요한 카드만 발급받아 사용하세요.

2. 카드 이용대금 결제일 준수

카드 이용대금 연체 시 연체이자를 부담하고,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신용 평가 시 불이익, 한도감액, 금리 인상 및 카드사용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한 개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포인트 활용도 제고

여러 장의 카드를 사용할 경우 포인트 분산으로 소액의 포인트를 활용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할부 이용 기간별 수수료 확인

할부 이용 시 기간 구간별로 같은 금리가 적용되므로 할부 결제 시 개월 수를 잘 선택하면 수수료 절약이 가능합니다.

5. 현금서비스 및 카드로론은 될 수 있는 대로 선결제

현금서비스 또는 카드로론 이용금액을 결제일 이전에 미리 결제하는 경우 결제 시점까지의 이지만 부담하게 되므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선지급 포인트 활용은 신중히 고려

선지급 포인트(세이프포인트)는 할인 혜택이 아니라 현금으로 갚아야 할 부채이며 매월 의무적으로 상환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돈, 카드 포인트 100% 활용하기

1. 포인트·할인 혜택 이용조건을 잘 이해하세요.

"전월 실적 산정 시 제외대상", "포인트 적립 제외대상" 등 이용조건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 (청구)할인받은 금액 전체를 전월 실적 산정 시 제외

* 대학등록금·무이자 할부·선불카드 충전금액 등 포인트 적립 제외



2. 이용조건 충족 어려울 땐 '가족카드' 활용하세요.

이용조건을 충족하기 힘들 때, '가족카드'를 이용하면 이용조건 충족이 쉬워져 더 높은 등급(수준)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족 간 카드 이용실적이 합산되지 않는 카드상품이 있고 카드한도 부족 등 단점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포인트" 다양하게 쓰세요.

-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생활용품 구매하고, 카드 금액 결제도 가능해요.
- 백화점, 주유소, 영화관, 놀이공원 등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하세요.
- 정기예금이나 펀드 같은 금융상품으로 옮길 수 있어요, 대출이자나 보험료 납부도 가능해요.
- '사회기부'도 할 수 있어요. 카드사가 현금으로 바꾸어 기부해서, 연말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 '세금'을 낼 수도 있어요. 소득세 등 모든 국세 제한 없이 납부 가능해요. 카드 로택스(www.cardrotax.or.kr)로 Go!



여수 경도를 광양만권경제자유 구역으로 편입 추진 중이에요.



탐나는 정보가 가득,

sns

<http://webzine.gfez.or.kr>

GFEZ 저널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GFEZ 저널을 읽고 느낀점이나 독자의 솔직한 소감을 들려주세요. 이 코너를 통해 소개를 해드리는 것은 물론 향후 편집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칼럼이 좋았어요!

Theme Story 성공을 위한 '진짜 초석' 세우기



연초의 다짐과 달리 자주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것 같은 일상이었는데 테마 스토리로 초심을 돌아보고 지금의 지루함을 극복하는

방법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GFEZ의 여러 사업을 보면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힘내야겠다고 다짐도 해보고 희망도 가져봅니다. 나른함과 진부함이라는 숲에서 길을 잃을 뻔했는데 종달새 지저귀음으로 길을 다시 찾아 나서 봅니다.

유선 독자

GFEZ Trip 매화꽃 흠날리는 광양의...



매화꽃 흠날리는 광양의 봄은 아름다워라 - 여행 기사가 정말 좋았습니다. 2면 거의 전부를 할애한 멋진 사진도 너무 좋았고, 마치 직접 광양의 구석구석을 거니는 듯하였습니다. 직장생활로 지친 몸과 마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화 독자

QR코드로 참여하는 Quiz

아래 QR코드를 찍으면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지는 퀴즈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퀴즈 참여 및 의견을 남겨주신 독자들과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이 전달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응모방법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QR코드를 스마트폰의 QR리더기로 스캔하시면 퀴즈에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 주소창에 광양청 웹진 주소 (<http://webzine.gfez.or.kr>)를 입력해 비밀번호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응모기간 2017년 9월 10일 까지

당첨자 선물

1등 (1명)
백화점상품권 10만원권

2등 (2명)
도서문화상품권 3만원권



3등 (5명)
스타벅스 음료 기프티콘

지난호 당첨자

1등 고 * 화(5460)

2등 윤 * 화(2675), 유 * (1150)

3등 김 * 근(3136), 최 * 용(9074), 이 * 윤(5022), 한 * 관(6464), 김 * 민(0428)

신산업·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국제무역도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다양한 비즈니스기회



- 5개 지구 21개 단지(77.02km²) 투자자의 다양한 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산업지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물류산업-광양지구
- 제조산업-울촌지구
- 주거산업-신덕지구
- 복합산업-하동지구
- 관광산업-화양지구

최적의 산업인프라



- POSCO 광양제철소
- 여수국가산업단지
- 풍부한 산업단지 (전국산단의 13.52%-189.6km²) 보유
- 저렴한 지가로 즉시 입주가능한 산업단지 확보

동북아 비즈니스 투자 ① 번지

www.gfez.go.kr

편리한 교통인프라



- 세계적인 국제항만-광양항 (2016년 약277백만톤 처리)
- 1시간권 항공시설-4개 보유 (광주, 여수, 사천, 무안)
- 수도권 연결 KTX (여수-순천-서울)
- 5개의 고속도로 연결 (수도권 3시간대 접근 가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떠오르는 투자 중심지 세종일반산업단지

- 위 치 : 광양시 광양읍 세종리 일원
- 사업면적 : 2,42km² (73만평)
- 분양면적 (53만평)
- 기능성 화학 소재 클러스터
- 외국인 투자지역
- 바이오 패키징 산업
- 제철 연관산업
- “2017년 12월말까지 투자자에 한해 분양가 15% 할인!”

관광·레저, 생활환경



-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
- 3개의 국립공원과 100km이내 530만명 배후시장확보
- 한국에서 가장 저렴한 토지가격과 수용권 부여



- 정주여건을 위한 주거, 교육, 의료, 레저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를 위한 지원

- 투자상담에서 사업개시까지 Non-Stop 서비스
- 업종에 맞는 입지선정 지원
- 시장조사 및 기업 협력파트너 알선
- 경영지원 보조금 지원